



## 슈주 김희철-트와이스 모모 열애...67세 박영규도 4번째 결혼

### 새해 벽두부터 연애가 핑크빛 물결

2020년 새해가 밝아오자 연예계는 따스한 사랑 이야기로 물들었다. 케이팝과 안방극장 예능프로그램을 주도해온 두 청춘스타가 사랑에 빠졌다. 신산한 개인사로 아픔을 겪어온 중견의 연기자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 보금자리를 꾸었다.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37)과 걸그룹 트와이스의 모모(히라이 모모·24)가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이들의 소속사는 2일 "두 사람이 평소 친한 연예계 선배 사이로 지내오다 최근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한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양측은 "당시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지금까지 서로를 지켜보며 갈

은 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모두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다"면서 당시 소문을 일축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들이 이후 짧지 않은 시간 서로의 모습을 마음에 담아온 셈이다.

실제로 김희철은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모모를 이상형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민경훈과 함께 결성한 프로젝트 듀오 우주검정이의 '나비잠' 뮤직비디오 여주인공으로 모모를 캐스팅할 정도였다. 모모 역시 김희철에 대한 호감을 키워왔다. 2017년 9월 추석에는 모모의 고향인 일본 교토에서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모습이 팬들에게 목격되기도 했고 이 같은 이야기는 이후에도 자주 연애에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희철은 2일 유튜브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유튜브 채널 '김희철 KimHeeChul'을 운영해 온 그는 이날 "당분간 히트(김희철+유튜브)는 쉬겠다"

고 밝혔다. 모모와 고제 중인 사실이 확인된 만큼 그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연기자 박영규(67)가 성년절인 지난해 12월 25일 결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또 다른 화제를 모았다. 소속사 크레딧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박영규가 지난해 12월 25일 가족과 지인만 참석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혔다. 박영규의 신부는 연예인이 아닌 여성이어서 소속사 측은 관련 신상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박영규는 1996년 이혼한 뒤 1997년 유명 디자이너 최모씨와 재혼했다. 하지만 2001년 다시 결별했고, 2004년 다시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이 네 번째 혼인인 셈이다. 팬들은 현재 KBS 2TV 주말연속극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에 출연 중인 그가 '뷰티풀, 원더풀'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으로 기대하며 온라인상 응원 댓글을 잇따라 올렸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스포츠동아

2020년 1월 3·4일 주말판  
sportsdonga.com 10판



## 고맙다, 대박이 아빠!

### 전북, 이동국과 사실상 1년 연장 합의...이르면 3일 사인

작년 연봉 10억1054만원...큰 폭 삭감 없는 듯만 41세 현역 전설...2009년부터 12시즌 동행 구단 "존재 특별" 모라이스 감독 "한국의 토티"

'라이언 킹' 이동국(41·전북 현대)이 2020시즌에도 초록 그라운드를 누빈다.

K리그 복수의 관계자들은 2일 "전북은 계속 이동국과 함께 한다. 1년 계약연장에 양 측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안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 구단도 "이동국은 우리의 영광을 함께 일군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 팀은 선수와 계속 동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은 지난 시즌이 끝난 뒤부터 이동국과 지속적인 교감을 나눴고,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즈음해 연봉과 옵션 등 큰 틀의 협상안을 도출했다. 아직 일부 조율이 남아있으나 구단과 선수 측은 최대한 빨리 계약을 끝낸다는 의지다. 이에 연말 휴가를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보낸 이동국은 이르면 3일 최종 사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공개한 K리그 연봉 현황에 따르면 이동국은 10억1054만 원을 받았는데, 전북은 일부 구단들과 달리 선수 측에 큰 폭의 삭감안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강희 감독(상하이 선화)에 이어 지난해 초 전북 지휘봉을 잡은 조세 모라이스 감독(포르투갈)도 평소 "이동국은 프

란체스코 토티(이탈리아)와 다름없는 존재"라고 베테랑을 인정해왔다. 이탈리아의 화려했던 한 시대를 풍미한 토티는 1993년부터 2017년 여름까지 AS로마(이탈리아)에서만 활약한 '원클럽 맨'이다.

1998년 포항 스틸러스 유니폼을 입으며 프로 커리어를 시작한 이동국은 미들즈브러(잉글랜드)에서 복귀한 직후인 2008년 후반기를 성남 일화(현 성남FC)에서 소화했으나 2009년부터 전주성을 뛰며 전북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주역이다.

전북에서 남긴 이동국의 족적은 깊다. 입단 첫 시즌 32경기에서 22골을 몰아쳐 구단의 첫 우승을 이끌었고, 그 후에도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포를 가동하며 토종 골재의 명성을 지켰다. 비록 지난해에는 9골·2도움에 머물러 기록이 꺾였으나 K리그 통산 300개 공격 포인트(224골·77도움)를 달성했다.

전북도 이동국과 동행하면서 7차례 K리그 정상(2009·2011·2014·2015·2017·2018·2019년)에 등극했고,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를 한 차례(2016) 평정했다. 결국 '이동국이 없는' 전북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과 팀 내 가치는 대단하다.

물론 이동국은 단순히 '상징적인 존재'로 남을 생각은 없다. 팀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현역 유니폼을 벗어 던질 각오가 돼 있다. 그는 "도저히 내게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은퇴를) 결단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해왔다. 아지는 더 뛴 수 있기에,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 새 시즌을 기약하는 것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불혹이 훌쩍 넘은 '라이언 킹' 이동국이 소속팀 전북 현대와 1년 계약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조건 조율이 남아 있으나 사실상 동행에는 마음을 함께 모은 상태다. 이번 계약연장을 통해 K리그 팬들은 '살아있는 전설' 이동국이 그라운드를 누비는 모습을 2020년에도 볼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아는 사람 부탁으로 마지못해 가입한 보험들  
**보장내용도 잘 모르고,**  
**보험료도 부담스러우십니까?**

**비교진단으로 간편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내 인생이 걸린 보험, 모든 보험을 비교해보고 가장 유리한 것으로 하셔야죠?  
선진국 방식의 획기적인 보험 '비교진단' 서비스 - 에프엠에셋.  
대한민국에 등록된 수많은 보험사들의 모든 보험을 비교진단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은 막아주고, 꼭 필요한 보장은 짹 짹 채워줍니다.



www.infodb.co.kr

### 보험전문가 에프엠에셋의 맞춤형 해결법!

- 노후대책을 위해 나에게 딱 맞는 '연금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중신보험'은 어떻게 드는 게 좋을까?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꼭 필요한 '간병보험'은 어떤 게 유리한지?
- 보험을 통한 '절세 노하우'까지?

### 보험은 FM대로! 에프엠에셋의 비교진단 설계!

- 동일한 보장에 보험료는 저렴한 상품을 찾아주고!
- 중복가입으로 줄줄 낭비되는 보험료는 막아주고!
-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암보험을 찾아주고!
- 나에게 꼭 맞는 노후보장 대책도 세워주는 비교진단 설계!

이미 가입한 보험도,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도  
보험전문가 '비교진단'해 드립니다.



FM에셋

24시간  
무료상담

080-235-0119